

2021년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조인식



고대의료원지부 역사에 길이 남을 2021년 산별현장교섭 대장정이 조인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10월 5일 오후 2시에 진행된 조인식은 사측 대표위원인 김영훈 의무부총장을 비롯해 정희진 기획처장 등 집행부가 참석했으며 노측은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 노재옥 지부장, 유지현 지도위원을 비롯한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한 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최상열지청장 및 담당 근로감독관도 참석해 의료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실감케 했다.



김영훈 의무부총장 ‘소통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만들어가야’

노사 대표위원 인사에서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노재옥 지부장을 비롯해 간부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 파업을 통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았다. 고대의료원이 꿈꾸고 있는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파업을 하는 등 소통의 단절이 없도록 해야겠다. 앞으로 선제적으로 직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것이 고대의료원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위원장 ‘평상시 노사 소통이 문화를 바꾸는 계기 된다.’

이어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이번 파업의 참가자들이 누구 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익을 위해 스스로 판단하고 나오는 세대인 것 같다. 거기에 맞춰서 노사문화나 병원문화가 바뀌어야 하겠다는 고민을 했다. 부총장님 말씀처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노사관계가 평상시 소통을 했을 때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계기도 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조직문화가 바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정교섭을 통해 제도적 합의를 했는데 국민들의 지지가 컸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노력했다는 인정이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이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라 정책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요구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인력문제와 관련해서는 병원수준의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도적 협의를 진행했다. 잘 됐지만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문제 및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 사립대병원들이 이제 노사가 함께 하는 방향을 고민해주셔야 한다. 의무부총장님이 선도적으로 고민해주시고 분위기도 잡아달라.”고 말하며 노정교섭의 의의와 고대가 함께 할 것을 당부했다.

최희선 본부장 ‘파업 나온 간호사들의 이유를 고민해야 할 것’

서울지역본부 최희선 본부장은 “서울본부에서 고대와 한양대가 파업을 진행했는데 노사의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면 한다. 특히 이번 파업에 간호사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하며 간호사들의 현장 문제를

잘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어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지부 사무실이 열악하다. 두 번째는 의료원 직원 구성이 간호직이 70%가량 차지하는데도 교섭위원에 간호사 대표가 없다. 간호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노재옥 지부장

‘52시간, 간호부 교대제 개선 등 시급한 현장 문제 풀어야’

현장교섭을 진두지휘했던 노재옥 지부장은 소외를 밝히며 앞으로의 노사가 해결해야 할 현장문제들을 강조했다. “노사가 고생했지만 양적 성장만큼 질적 성장도 가능했던 한해인 것 같다. 교섭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부총장님이 저랑 밤샘 대표자 교섭을 하면서 고생 많으셨다. 현재 과제가 많다. 52시간, 간호부 교대제, 연구용역, 교섭 합의사항 이행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조인식을 축하하기 위해 온 최상열 지청장은 부임한 지 한달 만에 고대 파업을 겪었다며 ‘노사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로 오늘 조인식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하며 일 할 맛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당부했다.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을 끝낸 뒤 곧이어 협약서에 날인 했으며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

앞으로의 남은 과제,

합의사항에 대한 논의 체계 및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

이번 합의를 통해 도출된 콜 당직 대기 수당, 3교대 근무자의 교대근무 개선,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노동조합으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진행과 해당 부서 적용 기준 등을 묻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의료원은 노사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항목별 세부기준 마련 및 이를 적용하기 위한 현장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그래야 적용 시기에 도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교섭으로 인해 중단됐던 현장문제 해결 위한 TF 재가동!

52시간 제도마련 TF, 교대근무 개선 TF, 노사문화, 인사문화 인력문제 개선 위한 TF가 교섭으로 인해 중단되어 잠자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현장에서는 애타가 기다리고 있는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합의사항 이행 논의와 더불어 빠르게 TF를 재가동하여 직원들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인식에서 노사 대표자들도 강조했듯 이번 합의사항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이 노사 소통을 통한 새로운 노사 문화로 발돋움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12대 대의원 보충 선거 안내

보건의료노조 선거관리규정 제 133조에 의거하여 고대의료원지부 산별 12대 대의원 보충 선거를 실시합니다.

- 다 음 -

1. 선출정원 : 안암()명, 구로()명, 안산()명
2. 투표일시 : 2021년 10월 14일(화) 00:00 ~ 15일(수) 18:00
3. 입후보자 등록기간 : 10월 5일(화)~ 8일(금), 매일 09:00~17:30
4. 입후보자 등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각 병원 노동조합 사무실)
5. 입후보자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추천서 포함) 1부(소정양식) * 해당 조직의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함
6. 입후보 등록자 공고 : 10월 9일(토)
7.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10월 8일(금) ~ 10월 12일(화), 매일 09:00~17:30
8.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 선거관리위원회(노동조합 사무실)
9. 개표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17:30
10. 개표장소 : 노동조합 사무실

2021년 10월 5일(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선거관리위원회